

평가인증! 이런 게 궁금해요!

Q-1. “평가인증을 받기 위해 준비해야 하는 서류가 너무 많아요”

A) 평가인증에서 확인하는 문서는 어린이집을 운영하기 위해서 일상적으로 구비하여야 하는 법정서류가 대부분입니다.

• 어린이집에서 평소 각종 활동이나 행사 이후 보육일지 또는 운영일지 등에 활동 기록을 남긴다면, 평가인증을 위해 별도의 문서를 만들 필요는 없습니다.

▷ 연령을 혼합하여 반을 운영할 경우라도 보육계획안과 보육일지를 연령별로 따로 작성해야 하나요?	a) 동일한 일과를 함께 하는 혼합연령반의 경우, 보육계획안 및 보육일지 모두 연령별로 따로 작성할 필요없이 하나의 문서로 작성 가능합니다.
▷ 보육일지를 작성할 때 많은 양을 쓸수록 점수가 좋다고 하는데, 어떨습니까? ▷ 소방대피훈련이나, 보육일지 등 꼭 사진을 첨부해서 기록해야 합니까?	a) 평가인증에서 문서로 확인하는 사항은 해당 지표별 문서작성 주기, 실시여부, 실시내용에 한하며, 문서의 분량, 사진 첨부여부 등은 평정과 무관합니다.
▷ 평가인증 문서는 정해진 양식대로만 써야 하나요?	a) 지표에서 요구하는 내용이 문서에 포함될 수 있도록 어린이집의 특성에 맞게 양식을 만드셔서 작성하시면 됩니다.

Q-2 평가인증에서 감점당하지 않으려면 모든 아이가 낮잠을 꼭 자야 하나요?

A) 그렇지 않습니다. 일과중 낮잠시간이라 하여 잠이 안오는 아이까지 반드시 잠을 재워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. 다만 다른 아이들의 낮잠을 방해하지 않도록 어린이집에서 휴식이나 조용한 활동을 개별지도하여야 합니다.

• 영유아 발달 특성상 에너지 충전 및 휴식시간을 제공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만4세 이하 종일반 영유아의 경우 낮잠 시간이 필요합니다.

Q-3. 평가인증에서 감점당하지 않으려면 특별활동을 하면 안된다는데 정말인가요?

A) 그렇지 않습니다. 다만, 어린이집에서 부모의 동의하에 오후시간대에 한하여 특별활동을 실시할 수 있으며 동 규정을 위반할 경우에 감점이 됩니다.

(물론 특별활동을 실시하는 경우에도 특별활동에 참여하지 않는 영유아에 대해서는 별도의 보육과정이 이루어져야 함)

Q-4. 평가인증을 통과하려면 날씨가 안 좋아도(추위, 더위, 황사 등) 실외놀이를 1시간 이상 꼭 해야 한다는데 정말인가요?

A) 아닙니다. 춥고 덥거나 비 또는 황사가 심한 경우 등 날씨가 안 좋으면 **실내활동** 등으로 대체 가능합니다. 어린이집에서는 실외활동을 매일 계획하되, 날씨·계절·영유아의 건강상태 등을 고려하여 융통성 있게 운영할 수 있습니다.

Q-5. 평가인증 이후, 어린이집이 다시 원상태로 돌아간다는데, 이에 대한 사후 관리는 어떻게 이루어지나요?

A) 연 1회 연차별 자체점검실시, 신입원장 교육 실시 등 평가인증 어린이집에 대한 지속적인 사후관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.

- 특히, 평가인증 어린이집 중 무작위로 선정된 시설을 방문하여 평가하는 **확인점검***을 실시함으로써 인증 어린이집의 지속적인 서비스 질 관리 노력을 유도하고 있습니다.

Q-6. 어린이집에서 평가인증을 받는 날이라고 우리 아이를 못 오게 해요!

A) 평가인증 현장관찰 당일 특정 아동에 대한 등원을 거부한 경우, 부정한 방법으로 평가인증을 받은 것이므로 평가인증 참여자격이 박탈되거나 인증 통과한 이후라도 인증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.

- ‘13.3월부터는 현장관찰일을 알려주지 않고 어린이집을 방문·평가하여 등원 거부 등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.

Q-7. 평가인증에 부모가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?

A) 네, 있습니다. 평가인증 참여를 위해서는 어린이집에서 스스로 운영 전반을 점검·개선해 나가는 상시 자체점검을 실시해야 하며, 이때 어린이집 원장·보육교사 및 부모가 참여하는 자체점검위원회를 구성·운영하므로 부모가 평가인증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.